

조계사 앞마당에 솟대가 섰다

'욕망의 시대'에 경종

최병수 설치미술전 '초심불심'

조계사 앞마당에 불집승과 날짐승 솟대가 섰다. 솟대뿐만 아니라 깨어져 밭이 흰해 드러난 독 안에 부처님이 앉아 오가는 불자들이 번갈고, 그 독 위에 연꽃까지 피었다.

불집승주의와 환경파괴, 도덕성 상실 등으로 얼룩진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환경미술가 최병수 씨의 설치미술 '초심불심(初心佛心)'전이 6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다.

80년대 후반부터 생태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활동에 주력해 온 최 씨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쓰레기들', 1997년 일본 교토 제3차 세계환경회의 '평안이 녹고 있다' 2001년 새만금 갯벌 살리기 '하늘마음 자연마을' 등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최 씨는 몇년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밀배진 독을 작업실에 옮겨놓은 이후 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 왔다. 지난 9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보인 '새만금 사업은 밀배진 독이 풀 붓기' 환경 퍼포먼스도 그 하나다. 또한 수호와 경계의 뜻으로 마을 앞에 세워진 긴 장대인 우리 전통 솟대에 우리 땅 우리 터의 주인인 갖가지 생명체를 표현하는 작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선보인 이번 작품은 외형적인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욕망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풍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씨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팽동어, 장어, 조개, 갑게기, 오리, 마도요 등의 솟대는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생물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결국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 중생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밀 배진 독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요. 그 욕망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지요." 밀 배진 독 위에 핀 연꽃은 연꽃공예가 이성자 씨의 작품으로 욕망을 제어하고, 본래의 나를 마주할 때 오는 자비와 평화, 상생 정신을 나타낸다. 밀배진 주변에 늘어선 작은 독은 바로 깨어지지 않은 초심(初心)의 상징이며, 그 속에 가득 채워진 맑은 물은 본래 우리 속에 내재된 불성이다.

4월 26일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표현한 연꽃을 조계사 동자승들이 독 위에 설치하는 '연꽃공양 퍼포먼스'를 통해 맑고 깨끗한 초심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nia.com)



최병수 씨의 설치미술 작품 '초심불심'에 연꽃 공양을 올리는 동자들의 모습이 선명하다.



김훈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앞산의 연꽃빛 신록이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저절로 숲 속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봄기운으로 푸석푸석하던 오솔길은 어느새 꽃비가 하얗게 깔린 비단길로 변해있었고, 길옆의 시냇물은 봄 노래를 재잘거렸다. 출처도 업지도 않은 곡 알맞은 기온 속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등 울긋불긋한 꽃대궐 속에 앉아있자니, 마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숲 속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계절은 다르지만,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가 아래의 시를 노래한 심정이 생각났다.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글은 4행 4언으로 구성된 '눈 내리는 숲가에 서서'라는 시의 마지막 연이다. 시인은 숲가에 서서 황홀경에 빠진 채 아름다운 자연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

프로스트 '숲가에 서서'

서원 갖는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지표 제시

마음은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형을 앞세우고 실천불교 운동을 벌였던 대승불교 창시자들의 고귀한 뜻을 생각해 본다. 아름답고 고요한 깨달음의 숲 속에서 한없이 머무르고 싶지만(上求菩提),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과의 거룩한 약속 때문에 사바세계로 돌아와 아픔을 함께 하는(下化衆生) 거룩한 선각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은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은 지켜야 할 약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경전에서는 '서원(誓願)'이라고 한다. 법장 바구모 하여금 보살행을 닦아 이타행으로 성불하게 만든 것도 그같은 서원의 힘이었고,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공덕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로서 우리에게 간절히 일러주는 방법도 '행원(行願)'의 길이다.

'서원'을 가진 인간에게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것이다. 서원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未來)'을 '장차 올 시간(未來)'으로 바꾼다. 일상의 관성에 따라 그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뚜렷한 장래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현재는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치열한 실천적 삶으로 바뀐다. 과거의 업이 나를 묶어매더라도, 미래의 내 모습이 나를 해방시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다. 서원은 미래를 미래원으로 바꾸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바른 지표를 제시해 준다. 법회 때 무심히 따라 외우는 '사홍서원'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나침반인가 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로 들어선다.

인생의 성태는 자라리(轉)가 아닌 이타(利)를 지향하는, 자신만의 서원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평론가

충주 송선사터 금동보살상 등 유물 출토

고려 초기 공종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송선사터에서 금동보살상과 분청사기, 고려 조선시대 기와조각 등 국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당터와 강당터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충청대 박물관은 4월 21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출토된 유물을 공개했다.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cm 크기의 금동보살상. 절터 맨 아래의 정토다짐층에서 발견된 보살상은 2구의 몸체와 1구의 얼굴이 떨어져 나온 채로 나왔다. 얼굴형상이 원만하고 온화

한 미소를 띠고 있다. 눈을 살펴서 내려 갔으나 오른쪽 눈피리가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간 게 특징이다. 한국고원대 정영호 교수는 "조선시기는 고려 초로 보아나 통일신라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미술사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상호가 뚜박한 고려시대 불상에 비해 보존의 화려한 장식이나 원만한 상호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또 발굴사상 처음으로 액자를 밀봉한 분청사기 장군병이 백자 및 각종 금속류 등과 함께 출토돼 관심을 모은다. 권형진 기자(jnny@buddhania.com)



송선사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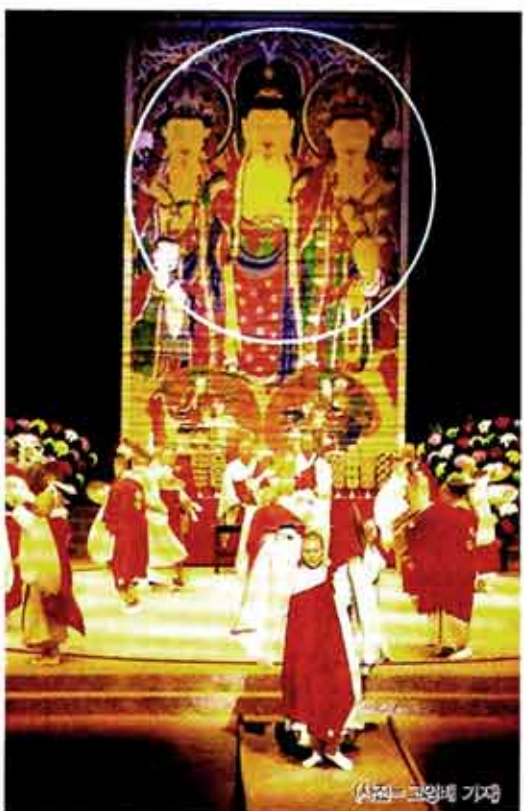


사진: 크리에이티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교예술품 미·영산재 4월 26일~27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했다.

'사계(四季)'를 거쳐가는 온전한 길-영산재'를 주제로 펼쳐 보인 이번 공연은 아름답고 웅장한 변태의 율림과 작법을 통해 관객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했다.

새음반 '샘' '소를 찾아서'

천불가요 <샘>과 선시노래 <소를 찾아서>가 기다려 나왔다. <샘> (드라마리메이크)은 자전 소설 <타래>를 발표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가수 출신의 보현스님이 노래를 부른 찬불가요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 '목마른 샘'을 비롯 발라드풍의 찬불가요 10곡이 수록됐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국악반주를 곁들여 일반인들에게까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몄다.

선시노래 <소를 찾아서> (주현식은 '깨달음의 나무' '꿈과 근심' 등 옛전사들의 계승에 곡을 붙인 것이다. 최근 기획사 푸른소리를 열고, 음악포교에 나선 황현스님이 기획 제작했다.

뮤지컬 '김영임 회심곡'

어버리 날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정과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 줄 우리 소리 뮤지컬 '김영임의 회심곡 2001'이 8일~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1999년 2000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김영임의 회심곡 공연은 1. 2회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경기인인, 전래동요 등 뮤지컬적인 연출과 구성을 통해 우리 소리 뮤지컬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재구성했다.

인생의 회노예력이 갖는 '회심곡'은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지은 불교가사로서, 이번 뮤지컬에서는 효의 의미와 인생무상 등의 내용을 민요에 답을 예정이다. ☎2786-8886

문화소식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잠잠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송선식 (2개월 50만원), 송효소장액 (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화 (3개월 50만원)
- 귀중근초 (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 (2개월 50만원), 유허원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풍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이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통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법륜 합장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나 세이비들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된 참깨를 먹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을 개발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뢰 총판 의료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송선식(松仙食)」, 「송효소장액(松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화(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형정님 올림